

손흥민 '차붐 전설' 넘는다

4일 에버턴 원정...한국인 유럽 최다 122골 도전

손흥민(토트넘)이 한국인 유럽무대 최다골 사냥에 나선다. 손흥민의 상대는 토포스(Toffees)라는 애칭을 가진 에버턴이다. 토트넘은 오는 4일 새벽1시 30분 영국 리버풀 구디슨파크에서 에버턴과 2019-2020시즌 잉글리쉬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원정경기에 나선다. 손흥민은 지난 주중에 열린 리버풀과 리그 10라운드에서 두 차례 골대를 강타하며 어렵게 골사냥에 실패했다.

리버풀전서 예열을 마친 손흥민은 에버턴 골문을 정조준한다. 이번 시즌 토트넘(승점 12) 3승 3무 5패로 11위를 달리고 있다. 에버턴(승점 10)은 3승 1무 6패로 15위를 기록중이다. 손흥민은 지난 23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개인 통산 유럽 축구 121번째 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차붐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 역대 최고 기록(121골)과 타이틀 이했다. 에버턴에서 골을 기록

할 경우 차붐 전 국가대표 감독을 따돌리고 한국인 유럽 최다골 주인공이 된다. 축구 팬들은 에버턴에 강한 손흥민 발끝을 주목하고 있다. 손흥민은 에버턴을 상대로 리그통산 4경기 출전해 3골 2도움을 기록하는 등 순도 높은 활약을 펼쳤다. 특히 가장 최근 열린 지난해 12월 리그 경기에서 멀티골 포함 1도움을 올리며 에버턴을 6-2로 격파했다. 에버턴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며 최근 6경기에서 1승 5패로 부진하고 있다. 유럽축구 통계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에버턴전 손흥민의 선발 출전을 예고하고 있다. 포제티노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에버턴전서

4-3-1-2 포메이션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전방에는 손흥민과 '주포' 해리 케인이 서며, 미드필드에는 지오바니 로 셀소와 탕귀 은돔벨레, 해리 윙크스, 무사 시소코가 선발 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비진에는 벤 데이비스, 안 베르통현, 토비 알데르레이럴트, 후안 포이스가 골문에는 파울로 가자니가가 쓴다. 토트넘의 후고 요리스와 다니 로스, 라이언 세세농, 에릭 라메라는 부상으로 결장한다. 지난 리버풀전에서 홀로 토트넘 공격진을 이끈 손흥민이 최근 기세를 이어간다면 한국인 유럽무대 최다득점 기록 경신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워싱턴 '아기상어의 기적'



"우리가 해냈어" 워싱턴 내셔널스 선수들이 지난 31일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에서 열린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월드시리즈(7전 4승제) 7차전에서 6-2로 승리해 시리즈 우승을 거둔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단 50년만에 월드시리즈 우승... 휴스턴 4-3 제압 투수 스트라스버그 MVP...WS 사상 첫 원정 4연승

워싱턴 내셔널스가 창단 50년 만에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WS-7전 4승제)에서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다. 워싱턴은 지난 31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미닛메이더파크에서 열린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WS 7차전에서 0-2로 끌려가던 7회 앤서니 렌던의 솔로 홈런으로 1점을 따라붙고 하위 켄드릭의 우월 투런 홈런으로 전세를 뒤집었다. 이어 8회 후안 소토의 적시타와 9회 애덤 이튼의 2타점 안타를 묶어 6-2로 승리, 감격스러운 WS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를 연고로 한 메이저리그 팀이 WS에서 우승한 건 1924년 워싱턴 세네터스 이래 95년 만이다.

당시 워싱턴 세네터스는 뉴욕 자이언츠(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꺾고 워싱턴 D.C. 연고팀 최초의 우승을 차지했다. 워싱턴 세네터스는 1961년 연고지를 이전해 지금의 미네소타 트윈스가 됐다. 워싱턴 내셔널스는 1969년 창단한 몬트리올 엑스포스의 후신격으로 2005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미국 수도 워싱턴 D.C.로 홈을 옮긴 지 14년 만이자 몬트리올 시절 포함 창단 최초로 WS를 제패했다. 워싱턴은 또 WS 원정 경기에서만 4승을 거둔 유일한 챔피언이라는 새 역사를 썼다. 워싱턴은 안방에서 열린 3~5차전을 모조리 패했지만, 휴스턴에서 열린 WS 1~2, 6~7차전을 잡았다.

MLB닷컴은 경기 전 메이저리그,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미국프로농구(NBA)를 통틀어 7전 4승제로 열린 시리즈 1천420경기에서 6차전까지 양 팀이 원정에서만 3승씩 챙긴 경우는 처음이었다며 워싱턴이 7차전에서 이기면 최초의 원정 4승 사례가 될 것으로 예고했다. 월드시리즈 2차전과 6차전에서 휴스턴의 에이스 저스틴 발렌타와 선발로 붙어 2승을 따낸 우완 스티븐 스트라스버그가 월드시리즈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스트라스버그는 시리즈 전적 2승 3패로 몰린 전날 6차전에서 승리를 수확하는 등 올해 WS에서 평균자책점 2.51의 뛰어난 성적을 남겼다. 이번 포스트시즌에서만 5승 무패, 평균자책점 1.98의 뛰어난 성적을 남겨 워싱턴의 우승에 크게 이바지했다. 워싱턴은 아울러 2014년 샌프란시스코 아레와일 드카드 팀으로 5년 만에 WS 우승 계보를 이었다.

올해로 115번째 치러진 WS에서 7차전 시리즈는 40년 나왔다. 워싱턴이 7차전에서 홈 팀을 울리고 22번이나 마지막에 웃었다. 워싱턴 내셔널스가 우승을 하자 미국 수도 워싱턴 DC는 '아기상어' (Baby Shark) 노래로 뒤덮였다. 팬들은 일제히 양팔을 크게 벌려 '아기상어 박수'를 쳤다. 상어가 입을 크게 벌렸다가 닫는 모습을 팔 동작으로 표현한 율동이다. 아기상어는 월드시리즈 기간을 포함해 이번 포스트시즌 내내 워싱턴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던 노래다. 아기상어는 2015년 한국의 유아콘텐츠 브랜드 '핑크퐁'이 북미권 구전동요를 각색해 내놓은 어린이 노래다. 중독성 있는 '뚜루뚜루~' 후렴구로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연합뉴스

U-17 월드컵 '첫 패'

3일 칠레와 조별리그 최종전

한국 17세 이하(U-17) 축구 대표팀이 '난적' 프랑스의 벽을 넘지 못하고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첫패를 기록했다. 김정수 감독이 이끄는 U-17 대표팀은 지난 31일 새벽 5시 브라질 고이아니아 세히나 경기장에서 열린 프랑스와 대회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1-3으로 패했다. 지난 아이티와 1차전에서 승점 3을 챙긴 한국은 프랑스전 패배로 1승 1패(승점 3-골득실-1)를 기록했지만 같은 날 아이티를 4-2로 꺾은 칠레(1승 1패-승점 3-골득실0)에게 골득실에서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 한국을 꺾고 2연승에 성공한 프랑스(승점 6-골득실+4)는 아이티와 3차전과 상관없이 16강행 티켓을 거머쥘 전망이다. 이날 경기에는 골키퍼 신승훈(금호고 2년)과 측면 공격수 엄지성(금호고 2년)이 선발출전했다. 한국은 전반동안 프랑스에게 10개의 슈트를 허용하며 0-2로 프랑스를 끌려갔다. 한국은 1골을 넣기 위해 후반 들어 라인을 올려 프랑스를 압박했지만 후반 33분 역습 상황에서 아하마다의 패스를 받은 리하지가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강한 원발슛으로 경기에 쐐기를 박는 골을 넣었다. 이후 후반 44분 정상빈의추격골이 터졌지만 경기를 뒤집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김정수 감독은 "칠레는 좋은 팀이다. 스타일이 우리와 매우 비슷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우선 선수 회복에 집중하겠다. 더는 몰라낼 곳이 없는 만큼 우리가 가진 100%를 쏟아 쏟아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대표팀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는 3일 새벽 5시 브라질 비토리아의 클레베르 안드라지 경기장에서 칠레와 조별리그 C조 최종전을 통해 16강 티켓 확보에 나선다. /김한영 기자 young@

유소년 헤딩 금지 검토

뇌 손상 우려...EPL 20개 팀에 서한

축구선수들이 치매 등 뇌 손상에 걸릴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가 '유소년 헤딩 금지'를 검토하고 나섰다. AFP통신은 EPL 사무국이 최근 유소년 선수들의 헤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소속 클럽들에 보냈다고 지난 31일 보도했다. 해당 연구가 이뤄진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미 12세 이하 선수의 헤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AFP에 따르면 현재 유소년 선수 헤딩을 금지하는 나라는 미국뿐으로, 10세 이하 선수들은 헤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11-13세 선수들은 훈련에서만 헤딩을 못 하게 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대 연구진은 FA의 지원을 받아 축구와 뇌 손상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진이 1900-1976년에 태어난 축구선수들과 23만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선수들은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뇌 손상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의 3.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